

대학 학생선발의 새로운 모색: 연세대 입학제도 개혁안을 중심으로

김 준 석 /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입학관리처장

여기서 필자가 논의하는 입학제도 개혁안이 당초 목표하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입시제도 외적인 맥락과 관련해서도 보다 심도있는 입체적 연구와 검토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입학제도 개혁의 방안은 제도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다양한 의견의 스펙트럼을 보일지라도 그 골격에 있어서는 수험생의 건전한 대학 지원과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 그리고 대학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방향이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또한 개혁안이 이러한 철학을 공유하고 있다면 구체적인 학생 선발 방안에서 나타나는 외형적 상이점은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1. 입학제도 개혁의 필요성

한국의 대학입시제도는 중병에 걸려 있다. 한국교육의 모든 문제점을 분석하다 보면 어김없이 도달하는 것이 대학입시제도다. 창조적 꿈을 키워가야 할 어린 학생들이 성장기에 꼭 필요한 수면시간마저 빼앗긴 채 ‘입시지옥’에서 허덕이고 있는 현실이다. 학생들은 매일 학교 공부 시작되기 전 1시간 가량 학교에서 자습을 해야 한다. 수업이 오후 5시에 끝나더라도 고등학교 학생들은 방과후 학교에 남아서 보통 저녁 10시까지 공부를 계속해야 하며, 집에 돌아온 후에도 새벽 1~2시까지 책과 씨름해야 한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는 일요일도 없으며 방학도 없다. 이들에게는 한

치의 물리적 정신적 여유도 주어지지 않는다. 학부모들은 “1~2년만 견디어서 소망하는 대학에 합격한 후 마음껏 놀아라”며 자녀들을 위로하는 게 고작이다.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으로 둔갑된 세상이다. 감수성이 예민한 나이의 학생들이 정신적 불안정 증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비정상이다. 어린 학생들을 육체적 정신적으로 짓누르는 입시지옥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대학입시제도의 개혁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입시제도 개혁은 초·중·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국민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교육목표는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고, 교육방식도 그 틀과 방향에 맞추어져 있는 실정이다. 학생들은 논리적이해력보다는 암기 위주, 창조력보다는 얕은 지식, 그리고 주체적이고 자발적이기보다는 수

동적으로 행동하는 데 길들여져 왔다. 이같은 학습방식은 학생 선발 과정에 지나치게 객관성이 요구되면서 소위 선택형 문제 위주로 대학입시가 치러진 데 그 원인이 있다. 94학년도 입시부터 일부 대학들은 주관식문제 출제와 논술고사를 도입함으로써 이같은 문제를 부분적으로 해소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만으로는 초·중·고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지식 평가뿐 아니라 여러 측면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들이 선발될 수 있도록 대학입시제도가 개혁되어야 한다.

새로 전개될 21세기 사회는 현재보다 더 개방적이며, 뚜렷한 개성이 요구되는 사회일 것이다. 지금과 같이 획일적 방법으로 동질적인 학생만을 입학시키는 제도로는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다양하고 특성있는 인재들을 배출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이고 모험적이며 적극적인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해서도 심각한 위기에 몰린 대학입학제도는 개혁되어야 한다.

2. 현행 입학제도의 문제점

현행 대학입학제도의 주요한

문제점은 크게 다음의 다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시험전쟁과 지나친 경쟁의식의 만연이다.

둘째, 사회환경 변화에 뒤떨어진 입시제도 문제다. 21세기에 특히 요청되는 것은 창의력과 이해력이 풍부하며,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인간이다. 그러나 한국 대학의 입시제도는 단순한 암기위주의 지식 평가에 그치고 있다.

셋째, 대학의 자율권, 예컨대 선발인원과 선발방식에서 대학의 자율권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다.

넷째, 평가도구의 획일성과 객관성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다.

- ① 최근까지 대학은 내신 성적과 대학학력고사 성적으로 학생을 선발하도록 되어 있었다.
- ② 94학년도부터는 내신 등급, 수학능력시험 그리고 본고사 성적을 계량화하여 학생을 선발하도록 획일화 되어 있다.
- ③ 입시에서의 평가에 있어서 객관성의 유지를 위해 선택형 일변도의 시험문제가 출제되었다.
- ④ 현실적으로 지역간에, 그리고 고등학교간에 상당한 학력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 내신등급의 지역별·고

교별 차이가 인정되지 않고 획일화되어 있다.

끝으로 현행 입시제도는 지방 고교교육의 피폐화를 초래하였다.

- ① 연세대학교의 경우를 살펴 보면, 서울 소재 100개 고등학교 출신 학생이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합격자의 50%를 상회하고 있다.
- ② 지방소재 고등학교(6대도시 제외) 중에서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를 지원한 고등학교는 전국 3,500여 개 중에서 불과 250여 개였으며, 합격자는 30%에 그쳤다.

3. 외국의 입학제도 사례 및 특성

우리나라의 입시개혁 방향을 설정하기 전에 우선 미국, 일본 그리고 영국의 입학제도와 그 특성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가. 미국 대학의 입학제도

미국 대학들은 고차원의 지적 능력과 다양한 속성의 학생을 모집하는 것을 기본적 철학으로 삼고 있다. 고차원의 지적 능력이란 단순한 암기력이 아니라 창의력과 이해력을 바탕으로 한 우수한 수학능력을 뜻한다. 다

양성이란 지적 관심, 특수한 재능, 사회적 경제적 배경, 문화적 성격 등을 포함하는 용어다. 미국 대학들은 교육과 윤리적 가치의 관점에서 다양한 학생집단을 구성하는 것을 기본적 철학으로 삼고 있다. 물론 대학의 주된 목적은 어디까지나 지적 능력의 배양에 있으므로 다양성을 추구하는 목적들은 부수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미국 대학들이 입학지원자를 평가할 때 고려하는 주요 요소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고등학교 성적, 교과내용, 학업계획, 교사의 추천서, 과외활동의 내용(가정 및 사회에 대한 공헌도와 지도자적 자질, 음악 또는 체육에서 뛰어난 재능을 보유하고 있는 학생 등), 적성검사 점수(SAT). 이같은 요소들은 미국 대학들이 오랫동안 입학제도를 운용해오면서 지원자의 자질을 평가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인정된 것들이다. 대학에 따라서 이 요소들의 상대적 중요성은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과정의 성적이 가장 중요한 평가지표로 인식되고 있다. 적성검사 성적도 중요한 평가지표이지만, 그것이 입학 여부를 결정짓는 결정적 요소는 아니다. 또한 고교 성적이 뛰어난 지원자라 하여 반드시 입학허가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성적이 우수하더라도 과

외활동 성과가 미미한 학생은 입학이 거절되기도 한다.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은 미국 대학들이 위에 열거한 요소들의 상대적 중요성을 계수화하여 지원자의 총점을 구하고 그에 따라 지원자의 서열을 매기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입학사정담당자는 다양한 평가요소를 토대로 주관적 판단을 내리는데, 그들의 결정은 신뢰성이 높다고 한다. 여기서 신뢰성이란 다른 입학사정담당자가 어떤 지원자를 평가하더라도 그 결과가 거의 동일한 것으로 나타남을 뜻한다. 미국 대학 입학사정담당자들은 정직성과 합리적 사고를 바탕으로 입학허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데, 그들이 내리는 결정의 신뢰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나. 일본 대학의 입학제도

한국과 일본은 사회현상에 있어서 가장 유사하다고 한다. 그런 일본의 사립대학들은 우리가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오래전부터 교육개혁을 치밀하게 준비해 왔다. 과거 일본 대학들이 추구해 온 공통목표가 일류대였다면, 요즘 일본 대학들이 추구하는 목표는 개성있는 대학이다. 소위 대학의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일본 대학들은 세계 경제환경의 변화에 발맞추어 다양성, 창의성 및 국제화를 실현하기 위한

입시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일본대학들이 신입생을 선발할 때 주로 사용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일반입학시험, 지정교제에 의한 추천입학, 자기추천 입학시험, 특별선발, 귀국자녀 입학시험, 사회인 입학시험, 입학관리처 선발(미국식 방식). 첫번째 열거한 일반입학시험은 보통의 시험으로서 70~80% 가량의 학생들은 이 방식에 의해 선발된다. 그러나 다음에 열거한 방식들은, 귀국자녀 입학시험(한국의 '특례입학제도'와 유사)을 제외하면, 우리에게서 생소한 제도들이다. 예를 들어 두번째 지정교제에 의한 추천입학은 대학에서 특정한 고등학교를 사전에 지정하고 우수학생을 추천받아 간단한 면접 등을 거쳐서 선발하는 방식이다. 세번째의 자기추천 입학시험이나, 네번째의 특별선발 방식 등은 다양한 자질이나 재능을 갖춘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한 제도로서 우리에게서 신선한 느낌마저 준다. 여섯째의 사회인 입학시험은 최근 도입된 제도로서, 대학의 사회에 대한 개방이라는 시대의 요청에 따라 입학을 희망하는, 면학 의욕이 투철한 사회인을 대상으로 한 입학시험제도다. 마지막의 입학관리처 선발방식은 미국의 제도를 그대로 도입한 것으로 게이오 대학교 후지사와

캠퍼스에서 최근 도입한 결과 사회의 반응이 매우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다. 영국 대학의 입학제도

영국 대학들은 미국 대학들과 마찬가지로 신입생 선발에 있어서 자율권을 누리고 있다. 심지어는 종합대학내의 단과대학별로 서로 다른 기준과 절차를 통해 학생을 선발하기도 한다. 영국 대학들이 신입생의 입학전형에서 고려하는 항목으로는 GCE(General Certificate of Education) 시험성적, 고교성적, 면접시험 그리고 교사의 추천서 등으로 이들 항목들은 미국 대학들이 채택하는 요소들과 커다란 차이가 없다. 특히, 영국 대학들의 입학제도는 반드시 우수한 학생만을 선발하는 데 있지 않다. 명문 사립대인 캠브리지 대학의 경우 다양한 속성을 갖춘 학생집단을 구성하는 것을 오히려 초점으로 삼고 있다.

라. 외국 대학 입학제도의

특성

지금까지 간략하게 살펴본 외국 대학들의 입학제도에서 공통된 특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① 대학이 입학전형에 있어서 완전한 자율권을 행사하고 있다.
- ② 대학은 학생 선발에 있어서 다양한 재능과 속성을

갖춘 학생집단을 구성하는데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 ③ 외국 대학들은 다양한 평가도구(고교성적, 교과내용, 학업계획, 교사의 추천서, 적성검사 또는 학력고사 성적, 일반 입학시험 등)를 활용함으로써 학생 선발의 획일성을 탈피하고 있다.
- ④ 이들 외국 대학들은 창의력과 이해력을 바탕으로 한 우수한 수학능력을 갖춘 학생을 선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4. 입시개혁 방향

가. 초·중·고 교육의 정상화에 기여

- ① 입시제도의 개혁방향은 장기적으로는 고교 내신성적의 비중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② 이와 함께 수험생의 입학시험부담을 감소시켜 주고, 중등교육의 정상화를 범사회적으로 실현시키는 방향으로 개혁되어야 한다.

나. 대학의 자율적 학생선발
선발 대상 학생, 선발 방식 및 입학정원 등은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앞으로는 대학이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학령인구의 변화와 외국 대학의 국내 진출로 한국 대학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다. 평가도구의 다양화

대학은 다양한 속성을 갖춘 학생집단으로부터 역동적 효과(synergy effects)를 기대할 수가 있는데, 이를 달성하려면 다양한 속성을 측정할 수 있도록 평가도구 역시 다양해져야 한다.

장기적으로 도입해야 할 평가도구로는 과학화와 체계화된 고교 내신성적, 학생의 적성을 가늠할 수 있는 수학능력시험, 정직하고 체계적인 교사추천서 등이라고 말할 수 있다.

라. 학생의 적성을 고려한 선발

지금과 같이 대학이 수직 서열화된 상태에서 대학의 특성을 살린 차별화가 실현되는 방향으로 수험생의 적성을 살린 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와 함께 수험생과 학부모를 위한 대학 입학 상담의 기회가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

마. 잠재적 능력은 있지만 소외된 학생들에 대한 배려
농어촌 고교학생, 사회인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근로자, 격오지 근로자(장기 하사관, 낙도 교사 등)의 자녀 등 이른바 소외계층에 속하는 학생으로서 잠재적인 가능성을 지닌 학생들을

위한 대학 입학의 기회가 보다 폭넓게 주어져야 한다.

바. 재정적으로 어려운 학생을 위한 장학금의 확대

현재와 같은 입시제도 아래에서 뛰어남 학문적 소양을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재정 능력이 결여되어 있으면 대학에서 수학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이런 일은 대학 진학을 포기해야 하는 학생 자신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대학은 이처럼 재정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제도와 기숙사 시설을 확대함으로써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고등교육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학생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힘써야 한다.

사. 입학전담부서의 설치

그동안 한국 대학들의 입학제도라는 것은 입학정원을 초과하는 지원자를 획일적이고 단순한 방식에 의해 효과적으로 탈락시키는 제도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하여 입시제도에 관한 관심은 기껏해야 입학시험 시행을 전후하여 그와 같은 '효율적인 탈락'이 원활히 수행되고 있느냐 하는 문제에 그칠 뿐이었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의 대학입시는 단순히

대학이 대학교육을 받으려는 사람들 중에서 적절한 일부를 선발하는 데 그치는 절차가 아니다. 대학입시는 수험생의 장래의 진로 문제와 맞물려 있고, 그래서 고등학교 교육의 방향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러므로 입시철이 지나면 입시와 관련된 업무가 종료되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항상 입시와 관련된 문제를 다각도로 연구·검토함으로써 보다 바람직한 입시제도가 마련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평소에 수험생과 학부모를 위한 상담의 기회를 최대한 확대함으로써 학생의 적성에 맞는 학과 선택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5. 입학제도의 중장기 계획

가. 본고사 폐지

대학별 본고사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도구가 개발되면 빠른 시일내에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고사를 폐지하는 주된 목적은 수험생들의 대학입시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중등교육의 정상화를 실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나. 특별전형 제도의 도입

① 소외계층에 대하여 배려함과 아울러 개성있는 다양한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하여 정원의 일정한 범위 내에서 대상자를 지정하여 선발하는 특별전형 제도를 도입하고 이러한 대상을 점차 확대한다.

② 대학교육을 받음으로써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녔으면서도 지역적인 특수성이나 가정환경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대학에 진학할 수 없는 학생들을 정원의 5% 범위에서 선발하는데, 그 대상은 잠정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한다.

- 농어촌 고등학교의 학생
- 근로자(사회인)
- 격오지 근무자(장기 하사관, 낙도 교사, 국가공무원 등)의 자녀

③ 학과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추천방식을 도입하는 특별전형을 실시한다.

- 지정교제(指定校制)에 의한 추천입학
- 자기 추천 입학
- 교역자 추천입학

④ 체육 특기자만이 아니라 음악, 문학, 과학, 수학 등 특기자 전형을 적극 활용하여 특정 분야에 탁월한 재능을 지닌 학생을 선발하도록 유도한다.

⑤ 특별전형에 의해 선발하는 학생수를 점차적으로 입학 정원의 20%까지 확대한다.

다. 내신, 수능, 면접의 체계화를 통한 합리적인 평가 도구의 개발

① 고교 내신성적의 비중을 점차 크게 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 결과는 일정한 수준을 기준으로 수학능력의 유무만을 판단하는 방법을 채택하는 문제를 검토한다.

② 학과별 적성에 맞는 학생을 선발하기 위하여 면접을 합리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③ 학과에 따라 고교 내신성적과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에 과목별로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라. 추천자와 내신평가 고교에 대한 사후평가

특별전형 추천자와 일반전형의 내신평가 고등학교에 대한 사후 평가를 실시하여 추천과 내신평가에 대한 신뢰도를 계속적으로 검증한다. 특히 추천을 포함한 학생선발이라는 방식은

사실상 국내에서는 그 경험이 전무한 만큼 예상치 않았던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도 없지 않다.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시행착오를 줄이며 새로운 입시제도가 조속히 수험생이나 학부모 그리고 고등학교로부터 충분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도입 이상으로 사후관리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6. 덧붙이는 말

앞에서 잠깐 지적한 것처럼 우리나라의 대학입시제도는 오로지 학생선발에만 한정된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한국의 사회구조나 한국인의 의식구조와도 맞물려 있는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사회 진출의 길이 상당히 차단되며 실제의 능력이나 소질보다는 학연이 오히려 큰 몫을 차지하고, 이른바 일류대학 출신이 아니면 상승하기 어려운 사회 분위기가 엄연히 지배하는 현실에서, 대학입시제

도의 개선이나 개혁은 '대학의 학생선발 문제'로만 치부해버릴 수가 없는 것이다. 지난 수십년간 시행된 여러 가지 대입제도 개선책이 성공을 거두기 어려웠던 것도 '복합적인 요소들과 결부된 대학입시제도의 문제'를 '단순한 입시제도의 측면'에서만 해결하려고 한 점에도 있었다.

지금까지 필자가 논의한 입학제도 개혁안 역시 당초 목표하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입시제도 외적인 맥락과 관련해서도 보다 심도있는 입체적 연구와 검토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입학제도 개혁의 방안은 제도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다양한 의견의 스펙트럼을 보일지라도 그 골격에 있어서는 수험생의 건전한 대학 지원과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 그리고 대학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방향이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또한 개혁안이 이러한 철학을 공유하고 있다면 구체적인 학생 선발 방안에서 나타나는 외형적 상이점은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할 수 있다. ▣